

남원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실업검도·태권도 승단대회 등 올해 46개 대회 개최 예정 체육시설 인프라 상시 가동

남원시가 지난해 스포츠대회 유치에 노력한 결과 올해 남원에서 46개의 각종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치렀던 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며 대폭 확충된 체육시설인프라를 상시 가동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동절기까지 아우르는 스포츠대회 유치를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를 제외하고도 올해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6개, 시장기대회 13개, 장애인체육대회 4개 등 46개의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중에는 신규대회도 8개나 된다.

여기에 10개 내외의 사·도비 지원대회를 추가 신청해 대회를 더욱 확충함으로써 유동인구를 대폭 늘려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예산도 전년도보다 20% 2억 3800만원이 늘어난 14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올해 남원에서 치러질 대회들을 살펴보면 2월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와 '태권도승단대회', 3



남원시춘향골체육관에서 7일동안 열린 2023년 동계 전국 실업 검도대회. <남원시 제공>

월 '전국탁구대회', '시장기 3쿠션 당구대회', 4월 국제대회인 '남원코리아오픈 국제테니스대회'가 치러진다.

또 '조선일보배 남원자전거대회', '김주열열사 추모배 자전거대회', '가을철 지리산그란폰도대회' 등이 열려 전국자전거 동호인들이 전국최고 코스로 꼽는 지리산정령지와 섬진강 배경의 코스에서 합차게 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초등태권도대회와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등은 특성상 많은 수의 가족 동반자가까지 남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시는 이들 대회가 단순 체육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에 머물며 시민과 함께하는 체류형 대회로 발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기업엔 인건비·취업자는 취업장려금 지원

남원시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남원시가 청년·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을 시행에 앞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신중년(개인)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만 18~39세 미취업 청년과 만 40~69세의 신중년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참여대상 기업은 남원시 관내 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신중년을 추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

는 기업이어야 한다.

참여기업에는 채용인 1인당 월 7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84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6개월·12개월·24개월 근무 시에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중년 역시 6개월·12개월·24개월로 근무기간을 나눠 50만 원씩 2회와 24개월 근무시 100만 원 등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취업채용신청서 등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남원시일자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봄철 산불 예방·초동 대처 강화

산불 감시·진화인력 발대

정읍시가 건조한 날씨가 지속적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감시·진화인력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산불감시원 7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이 위촉됐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찰 및 진화요령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산불감시원은 적극적인 산불 감시와 계도 활동

으로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진화장비(진화차, 급수차, 등점프 등)를 수시로 점검,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산불예방 무인 방송과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24시간 산불감시 및 방화활동을 펼치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산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의회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을"

"접근성 수도권 못지않아" 대정부 건의문 채택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을 촉구한다." 정읍시의회가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읍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박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에 따르면 미술관 285곳 중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107곳이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한 이래 1986년 과천관으로 본관을 이전했고, 이후 분관으로 덕수공관과 서울관, 우리나라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인 청주관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중부권 핵심 도시인 대전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추가 건립계획을 밝혀 국립미술관을 5관 체제로 확장하는 것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중부권 지역인 청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이 분관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또다시 분관을 설립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을 따름이다"며 "국민들의 균형적인 문화 향유차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이 2023년 첫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제공>

원에서도 호남권 지역인 정읍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읍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 또는 대도시 못지않은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미술관 건립에 최적지다"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정읍시는 전북 서남부, 전주와 광주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목포-서울 KTX 및 SRT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국도 3개 노선이 연결돼 있는 서해

안 지방 교통의 요지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시를 주제로 조성한 '정읍사 공원'과 '정촌가요특구'가 조성되어 있고, 고종황제 어진을 그린 채용신 등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도시다.

시의회는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이 건립된다면 지역의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대표 도시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며 현대미술관 분원 정읍유치를 거듭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민 잠재능력 개발·취미활동 독려

17일까지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고창군이 군민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미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수강생 모집 완료 후 3월2일~6월3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240명,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과목은 자격증취득과정 10과목과 기술기능, 취미과정 8과목 등 총 18개 과목이다.

특히 군민들의 특장분야 강좌개설 요구에 따라 '정리수납전문가', '타로상담사', '1인미디어' 과

정이 신규과목에 편성되기도 했다.

시간상 주간 교육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컴퓨터실무과정 ITQ'와 '혼밥생활요리' 등 야간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다.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월 1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에게는 면제된다.

지난해의 경우 35개 과정에 433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중 7명이 취업과 연계됐으며, 120명은 자격증을 취득해 군민 역량 강화 및 일자리 기회 제공 등에 큰 성과를 내기도 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

고창군 스포츠타운에 탁구와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전용구장이 생겼다.

지난 2020년 7월에 착공했던 고창읍 월암리 스포츠타운 내에 들어선 전용구장은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 70억원이 투입된 시설로 탁구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비롯해 샤워실과 사무실 등이 갖춰진 연면적 2363㎡ 규모로 건립됐다.

군은 이곳 전용구장 건립으로 주민들의 숙원사

업이 해소되고 다채로운 체육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성 고창군수는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체육산업 육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관식을 계기로 체육시설 인프라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